

우주

스페이스X, 첫 재진입 캡슐 Starfall 시험비행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스페이스 X, 첫 재진입 캡슐 Starfall 시험비행

지난 6 월 23 일, 스페이스 X 가 무인 재진입·회수 캡슐 스타폴(Starfall)의 첫 시험비행인 스타폴 데모(Starfall Demo) 미션을 수행했다. 스페이스 X 는 스타폴에 관해 자체적으로 공개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기체에 관한 정보 대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지난달 공개된 연방항공청(FAA) 환경평가 문서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비행의 목적은 우주에서 제조한 물체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캡슐이 제어된 재진입과 태평양 착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시연이다.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 X 가 이번 미션을 사실상 기밀 임무처럼 다뤘다는 것이다. 평소 스타링크 발사에서 공개하던 2 단부 영상이나 페이로드 분리 시점을 일절 중계하지 않았고, 발사 후 타임라인도 1 단 착륙에서 끝났다. 즉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은 스타폴이 궤도 전개까지 성공했다는 것이며, 캡슐이 재진입에서 생존했는지 또는 착수 후 회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FAA 에 따르면 후속 임무(데모 2)도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폴이 타겟하는 시장은 두 곳이다. 하나는 미세중력 환경에서 의약품·반도체 결정 등 고부가 물질을 제조하는 우주 제조(in-space manufacturing)이고, 다른 하나는 화물을 지구 반대편으로 단시간에 보내는 지점 간(point-to-point) 운송이다. 이때 활용되는 기체는 지름 약 3.1m·높이 0.75m 의 납작한 원반형이며, 자체 추진 엔진 없이 질소 쿨드가스 추진기로 자체만 제어한다. 두 부분(상판 알루미늄 구조 + 탄소섬유 열차폐막)을 합쳐 약 2.1 톤이며 최대 1 톤의 화물을 회수할 수 있다. 추후 발사·회수 단가를 낮춰 우주 제조를 상업적으로 자생 가능한 시장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스타폴이 진입하려는 미세중력 제조·회수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Varda Space Industries 와 일본의 ElevationSpace 등이 있다. Varda 의 경우, 2023 년 첫 발사 이후 여섯 차례의 발사·회수를 수행했고, 2025 년에는 1 억 8,700 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를 유치해 누적 조달액은 3 억 2,900 만 달러에 이른다. ElevationSpace 는 최근 4,000 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를 유치했다. 다만 이들은 회당 수십 kg 수준의 소형 캡슐에 머물러 있어, 회당 1 톤 회수가 가능하고 발사부터 궤도 체류·회수까지 수직 통합한 스페이스 X 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시장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한주 간 주요 뉴스

[성능을 개선한 아리안 6, 아마존 리오\(Amazon Leo\) 위성 발사](#)

[블루오리진, 뉴글렌 발사대 재건 착수](#)

[MDA 스페이스,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위해 블루캐니언테크놀로지스 인수](#)

[NASA·보잉, 스타라이너 비행 재개 시점 여전히 불투명](#)

[소피아 스페이스, 궤도 컴퓨팅 시연 위해 에이펙스 위성 버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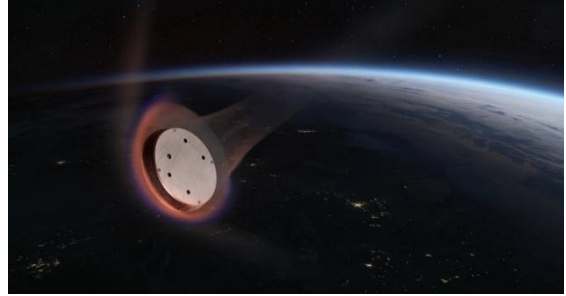
[보잉, 통신위성용 20억 달러 규모 우주군 계약 수주](#)

스페이스 X에서 발표한 스타폴 배치



자료: X.com(@SpaceX), 유진투자증권

스타폴 캡슐 상상도



자료: SpaceX, 유진투자증권

스타폴 캡슐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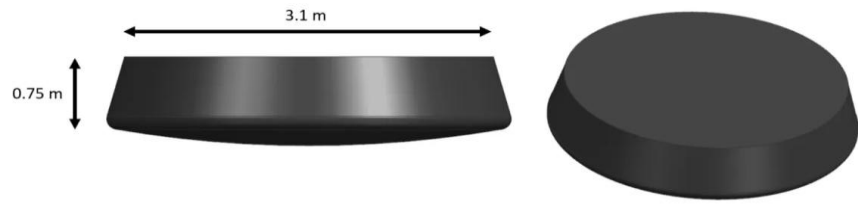


Figure 1. (Left) Side View of the Starfall. (Right) Top View of Starfall.

자료: SpaceX, FAA,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